

넉넉한 인심·눈부신 풍광... 숨겨진 보석같은 섬마을

바다 보며 둘레길 걷고 해상펜션서 낚시 삼매경 빠지고
참전복·반건조우렁에 이연복 셰프도 감탄한 막걸리 일품
마을의 자랑 청석포 몽돌해변서 여유롭고 행복한 추억

찾아오시는 길

여수 개도 신흥마을 (전남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40)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신대교차로→여수, 목포·방면→해룡교차로→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율촌·방면→교동사거리→돌산대교, 여객선터미널·방면→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여수종합버스터미널→여수시내버스 88, 82, 80, 999번 '중앙시장 정류장'하차(20~25분 소요)→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도보3분)

▶ 열차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여수엑스포역→여수시내버스 2, 6, 7번 '중앙시장 정류장'하차(20~25분 소요)→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도보3분)

정말 오랜만에 섬으로 떠난다. 20분 넘게 배를 타 보는 건 얼마 만인가.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승선 후, 배가 출발하기 전 주위 풍광을 둘러본다. 1.5km 길이의 국내 최초 해양 케이בל카는 부지런히 사람을 실어다지고 멀리 돌산대교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드디어 출발. 며칠 째 35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바다는 시원한 바람을 선사했다. 후텁지근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마치 가을바람 같은 선선한 바람 덕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다. 편안히 쉬 수 있는 선실 대신, 갑판에 나와 앉은 이들의 얼굴에선 여유로움이 넘친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몸과 마음을 맡긴 후 50여분을 달리니 멀리 선착장이 보인다.

오늘의 목적지는 여수시 화정면 개도 신흥마을. 주위의 작은 섬들을 거느린다는 뜻으로 '개(巖)자를 써 '개도'라 불리는 섬이다. 또 마을 뒷쪽에 봉화산(338m)과 천제봉(335m)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두 귀처럼 보여 개도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개도 북쪽에는 여수반도, 북동쪽엔 돌산도, 남동쪽엔 금오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8.7km, 해안선 길이는 25.5km다. 51가구 80여명이 살고 있는 신흥마을은 개도에서 두번째로 큰 마을이다.

배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우릴 반긴 건 선착장 매표소 옆 담벼락에 그려진 소박한 생태취미의 '어린왕자' 벽화다. 남도 끝자락 '섬마을'의 어린왕자라. 머리 속에 남아 있는 어린왕자와 썩 닮지는 않은 모습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마을로 접어드는 길엔 벌써 코스모스가 피었다. 마을회관 앞 정자는 명당자리다. 시원한 바람이 여름을 잊게 만든다. 동네 사랑방 구실을 하는 정자에선 어르신들 20여명이 앉아 세상사는 이야기 나누며 음식을 나눠 드시는 중이다.

가족같은 마을이다. 어른들을 공경한다. 말린 우렁이랑 미역이 맛있으며 동네

자랑 하기 바쁜 어르신들이 이구동성 소개한 곳이 있다. '청석포'다. 동네 사람들 학창시절 봄·가을 소풍을 다니던 곳이란. 봄이면 진달래 따다 화전놀이 다니던 곳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곧장 청석포로 향했다. 등산로를 오른 쪽으로 끼고 오면 정도 움직이니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인다. 작렬하는 햇살을 받은 바닷물은 눈부시다. 맨들맨들한 물결이 일품인 해변인데 태풍으로 다른 돌이 섞여 들어와 조금은 아쉽다. 안내를 맡은 어촌계장의 말에 따르면 날이 맑을 때면 멀리 초도와 제주도까지 보인다고 한다. 오른쪽 울창한 소나무숲 사이로는 최근 개도의 명물이 된 둘레길이 보인다.

'개도 사람길'은 지난해말 1~2코스가 완성됐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입소문'이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코스는 화산 신흥구-여석 전망대-모전을 걷는 4km 구간으로 1시간 15분정도가 소요된다. 2코스(1시간 15분 소요)는 모전-솔머리-청석포에 이르는 4.2km 구간이다. 현재 3코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며 앞으로 4코스도 개발될 예정이다.

개도의 명물은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해상 펜션이다. 마을 이장의 작은 배를 타고 바다 위 펜션을 찾았다.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둔 외관이 인상적인 펜션은 꽤 넓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바깥 계단을 타고 펜션 건물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바닷 물결에 실랑 실랑 움직이는 흐름에 몸을 맡기니 상념이 날아간다. 펜션 주위의 공간에선 낚시하기 그만이다. 의자를 내어놓고 독서하기도 딱 좋을 듯하다. 노을이 질 때면 근사한 풍경도 보일 터다. 펜션은 모두 3채로 한 채당 최대 15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격은 10만~15만원 선이다.

신흥마을 특산물엔 연간 4억원어치를 생산하는 참전복이다. 적정한 수온과 함께 철



푸른 바다와 봉화산을 품고 있는 여수시 개도 신흥마을은 조용히 머물다가기 좋은 곳이다. 전복따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2코스까지 완공된 생태탐방로 '개도 사람길'은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반건조 우렁, 건미역, 참전복 등 다양한 특산품도 구입할 수 있다.



개도 앞바다에 떠 있는 해상펜션.

따라 갈파래, 모자반, 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먹이를 먹고 자라는 개도산 전복은 육질이 다르고 오도독 씹히는 맛이 그만이다.

살아있는 고기를 말리는 반건조 우렁과 참돔도 인기가 많고 비렁에서 큰 파도를 맞고 자라는 미역은 국을 끓이면 깊이가 남다르다. KBS '1박2일'에 등장한 이연복 셰프가 감탄한 개도 막걸리도 명물이다.

특산물 구매와 펜션 예약은 어촌계장 휴대폰(010-3621-8943)으로 예약하면 된다.

대표 즐길거리는 역시 바다 낚시다. 가파른 경사와 기암절벽 경관 등 깎바위 낚시 조건을 고루 갖춘 인기 스폿이 많아 1년이면 5000명 정도가 찾는다. 겨울에는 감성돔이 제일이고 요즘같은 여름엔 도다리, 우렁, 정통어 등이 많이 잡힌다.

대표 특산물인 전복따기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1만 원을 내면 전복 한마리씩을 직접 딸 수 있다. 또 문어와 게, 바지락 등을 잡는 통발 체험(1만원)도 인기다. 지역에서 많이 나는 방풍나물 체험(1만원)도 해볼만하다. 발주인과 함께 방풍나물을 직접 따서 장아찌까지 담궈보는 체험이다.

돌아가는 배편은 여수 여객선터미널 대신, 백야도 선착장으로 잡았다.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다. 신흥마을은 아직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숨겨진 보석같은 공간이다. 여유롭게 머물며 행복한 '섬마을 추억'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입소문 타고 방문객들 꾸준하게 늘어 마을기업 형태 특산물판매장 만들 것”

김정숙 어촌계장

개도 신흥마을 김정숙 어촌계장은 마을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김 계장은 기저질환으로 퇴원, 부지런히 이곳 저곳을 안내 해주었다.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화합이 잘되는 동네라고 자랑했다.

51가구 주민들의 생업은 어업 양식이다. 소득이 높은 참전복 양식업은 3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김계장은 활어 양식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신흥마을의 특산물 중 인기 있는 건 반건조 우렁과 돛이다.

“뚝깎이 말린 우렁이라고 해도 죽어 있는 생선을 건조한 것과 살아있는 생선을 건조한 것에는 맛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양식장에서 살아 있는 우렁을 건져 해풍에 말린 우렁은 맛이 일품입니다. 미역 역시 직접 산지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좋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건미역 작업은 고령의 주민들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 젊은 이들이 채취해온 미역을 딱 좋게 다듬고 말리는 일이 그들의 몫이다.

신흥마을 어촌계는 앞으로 마을기업 형태의 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꿈꾸고 있다. 현재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특산물을 한자



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최근 방문객들이 늘고 있어요. 둘레길도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시사철 사람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3코스가 완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흥마을에 꼭 놀러오세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깨끗한 바닷물이 일품인 청석포 풍경.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